

## 영유아·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 창제작 플랫폼

Korea Performing Arts Network for Youth Creative Platform

# 2026 K-PANY 창작꿈밭

## 다가오는 휴머니즘

주최·주관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6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돌움단계' 참가자 모집(2026.3.12. ~ 3.29.)

2026 아시테지 K-PANY 네트워크 플랫폼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창작꿈밭은 영유아·어린이·청소년 공연예술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달려온 3개년 단계형 창제작 지원 플랫폼입니다.

3개년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2026년에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보다, 이미 싹을 틔운 가능성들이 무대 위에서 단단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돌움단계'에 역량을 집중하여, 쇼케이스를 통해 관객과 호흡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밀도 있는 시간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는 창작꿈밭의 연속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지향하며, 2025년 씨앗단계를 거쳐 발아한 기존 작업뿐만 아니라, 쇼케이스 시연이 가능할 만큼 이미 '발아'된 신규 작업까지 폭넓게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철학적 사유를 공유하며 관객과 호흡하고자 하는 창작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창제작 플랫폼 『2026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 사업 기간** 2026 3. ~ 2027. 1.
- 주요 장소** 아르코꿈밭극장, 문화공간 예술터밭 등
- 주최 주관**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모집 내용

- 모집대상**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주요 관객으로 작업하는 창작자(개인 또는 단체)
- 모집규모** 4건 내외
- 작품조건** 일정수준의 리서치와 구상이 진행된 작품  
30분 내외의 쇼케이스 형태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춘 작품
- 모집 장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등 장르 제한 없음
- 지원사항** 쇼케이스 사례비 지급 : 5,000,000원 ~ 7,000,000원 내 작품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  
강의 및 워크숍, 창작 레지던시, 쇼케이스 전 과정 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양식) ② 3년간 활동증빙서류(포트폴리오, 자유양식)

#### 신청 및 절차

- 접수기간** 2026. 3. 12.(목) ~ 3. 29.(일) 자정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assitej@assitejkorea.org)
- 선정방법** 행정 심사 및 서류심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 결과발표** 2026. 4. 6.(월) 예정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진 일정 (전 일정 참여)

강의 및 워크숍	2026. 6. 8.(월) ~ 6. 30.(화)	매주 월, 화 10:00 - 18:00(총 8회차), 맞춤형 프로그램
창작 레지던시	2026. 10. 30.(금) ~ 11. 7.(토), 총 8박 9일	8박 9일 집중 창작 (강원 화천 예술터밭 예정)
쇼케이스	2027. 1. 8.(금) ~ 1. 17.(일)	30분 내외 관객 대상 쇼케이스

#### 유의사항

- 본 프로그램은 약 10개월간의 높은 집중도를 요구하는 플랫폼입니다.
- 전 과정 중 90% 이상 참여가 필수이며, 일정 중 2회 이상 불참 시 중도 하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및 사례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강의 및 워크숍 중 일부 과정은 청강 희망자를 모집하여 공개 운영합니다.

#### 문의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 02-745-5863, assitej@assitejkorea.org

#### 프로그램 디렉터의 글

우리는 오래도록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계는, 그 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기술과 자본에 기반한 세계질서의 재편,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장,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인간에게 남은 희망은 무엇인지. 이런 세계를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 것인지.

창작꿈밭은 지난 몇 해 동안 “다가오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들로 이 질문을 대신해왔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호소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나 미래 담론에 대한 구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간 중심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는 수행을 위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예술 역시 이 질문으로부터 다시 시작해하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공연은 단지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고 감각을 나누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예술적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유가 시작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창작꿈밭은 이러한 질문을 품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꾸준히 만나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씨앗단계를 거쳐 발전해 온 여러 작업들처럼, 이미 일정한 리서치와 구상이 진행되어 쇼케이스 형태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작업을 찾고자 합니다.

2026년 창작꿈밭 돌움단계에서는 30분 내외의 쇼케이스 형태로 발표가 가능한 작품을 공모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관객으로 상정하고 있는 예술가 개인 또는 단체의 작업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다양한 방식의 공연 작업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소재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공연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관객을 만나게 되는 방식까지 포함해, 작품이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서는 이러한 세계관이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쇼케이스는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한 하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세계가 관객과 만나며 어떻게 확장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이번 돌움단계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작업해 온 예술가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프로그램 디렉터 배요섭